

“전국체전 남북 화합의 장 될 수 있는 기회” ‘교육도시 명성 되찾는다’

익산시, 전국체전 북한팀 초청 세계평화축제로 승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전북 익산시가 북한팀을 초청해 세계평화축제로의 승화를 도모한다. 17일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남북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전제했다. 정현을 시장은 “최근 막을 내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스포츠·문화 교류가 냉전의 고리를 끊어내는 놀라움을 경험했다.”며 “대한민국의 체육대회에 북한 초청팀이 참여한다면 놀라운 변화는 한층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초청팀의 참가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성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를 협의차 다녀왔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들 기관들에게도 흔쾌히 협조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제

도민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면 북한 초청팀 참가는 한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시장은 “전국체전을 우리의 축제가 아닌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화합체전으로 승화시키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북도, 대한체육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북한팀 초청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북한이 결정하게 되면 1개월이면 초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다.”고 피력했다. 체류 비용에 대해서는 “북한 초청팀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에서도 이를 부담할



정현을 익산시장이 17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북한팀을 초청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회 참가가 이뤄질 경우 익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가동될 당시 3개 섬유업체가 공

단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익산의 섬유기업이 또 다시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미래교육도시 조성 185억원 사업비 투입

익산시가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인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양한 교육 수요층과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시는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 64개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화상영어 교육과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또 옛 남중학교부지의 익산외국어교육센터(가칭) 설립을 지원한다. 시는 다양한 혁신교육 지원을 통한 행복도시 추구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익산혁신교육특구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의 정서 안정을 위해 조식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아울러 지역 유·초·중·고교 159개교에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 /익산=정양원기자

이 밖에도 어울누리 청소년 자치공간 활성화, 학교 공원화·명상숲 조성, 유아숲체험원,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행복 증진에 나선다. 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 만족도 향상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익산교육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해 교육문제를 논의해 제안된 15개 사업 추진을 위해 7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시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다문화학생코칭지원, 인정한 학교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에 집중한다. 이상준 안전행정국장은 “익산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지원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감형 교육사업 추진으로 교육도시 익산의 모습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부모교육,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군산시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호응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군산시가 추진한 어린이행복 부모학교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가 후원하고 전북서부아동보호기관이 주관하는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는 ‘부모교육 7시간, 가족 행복 70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해 부모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역시 지난 12일 진행된 기본 교육에 영유아 부모 450여명이 참여했으며 실습교육에도 4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신청해 상반기에 작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부모님들의 만족도 및 참여도가 넘치고 있다. 특히 2018년도 부모학교의 필수 강좌로 최성에 박사과 조벽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감정코칭 교육은 지난해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기본·공동교육(2시간) 후 분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분반·실습교육(5시간)을 수료하는 형태로 개선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부모는 가정

의 선생님인 만큼 부모교육 참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현명한 선택”이라며 “부모교육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표현 방법을 배우고 서로의 다름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군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전북서부아동보호기관 관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 어린이행복부모학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 안 내·신청·참여·실습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운영방식으로 진행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 지원과 행정제도개선분야 기관표창을 받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시에서는 부모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가족 성격검사 자녀와 함께하는 신체합·놀이체험 명사 특강 초청 등을 통해 가족의 행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대 최고경영관리자과정 광병선 총장 초청 특강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관리자과정은 16일 군산대 사회과학대학 강의실에서 광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수강생 및 군경총동문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병선 총장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법과 관련해 흥미롭게 풀어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자율주행차의 달래미를 지적했다. 출가세포를 이용한 치료용 복제 및 인간복제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통해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광 총장은 “과학은 편리성 한계성 위험성이 공존하는 영역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생명윤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과수 농가 대상 공동방제용 약제 무상 공급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17일 외래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 배, 감 등 관내 과수 농가 400여 명(면적 272.5ha)을 대상으로 공동방제용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마르며 화상병이 발생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한다. 또한 전염속도가 빨라 식물 방역법에 의해 발병 과원은 발병후 뿐만 아니라 과원 내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도 매몰해야 한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국내 수출 배와 사과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과수 농가의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어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최근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산 너브레 등) 여러 과수에 발생하여 그늘 음영 및 생육장애를 일으켜 농산물의 수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기술보급과 관계는 “정밀하고 지속적인 현장기술지원을 통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돌발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들도 공동 방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익산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와 말, 돼지, 가금(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

담 50%다. 농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부담의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을 진행한다. /익산=정양원기자